

정치유튜브 구독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및 반대 집회의 참여를 촉진했는가?: 집회 참여자를 중심으로*

도 묘 연**

•요 약•

이 연구는 정치유튜브 구독이 12·3 계엄 이후 출발된 찬탄 및 반탄 집회의 참여 강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이러한 작업은 양 집회 참여자의 특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정치동원의 새로운 매개체로 부상한 정치유튜브 채널의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해 수행했다. 분석대상은 집회 참여자와 개인 정치유튜브 채널로 한정했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유튜브 구독은 찬탄 및 반탄 집회의 참여를 촉진하는 요인이다. 그리고 진보에 비해 보수 채널 구독의 영향력이 더 강했다. 즉 상대적으로 보수 정치유튜브의 정치동원력이 진보보다 높았다는 것이다. 둘째, 통제변수의 영향력은 사회경제적 변수에서 나타나지 않았고, 양 집회별로 차이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혹은 국민의힘에 대한 부정적 감정, 평상시 정치적 결사체 활동, 오프라인 정치참여의 영향력은 양 집회에서 모두 도출됐다. 반면 이념의 영향력은 찬탄 집회에서, 그리고 분노(탄핵)의 효과는 반탄 집회에서만 확인됐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적 결사체와 함께 시위 참여를 촉진하는 정치유튜브의 동원력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주제어 : 정치유튜브 구독, 찬탄 및 반탄 집회, 시위 참여, 정치동원, 팬덤

I. 문제제기

이 연구의 목적은 정치유튜브 구독과 시위 참여의 관련성을 규명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보수 혹은 진보 정치유튜브 구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찬성 혹은 반대 집회

* 이 논문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4S1A5A2A 03035130).

** 계명대학교 이민다문화센터 연구교수

(이하 찬탄 및 반탄 집회)의 참여 강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이러한 시도는 이념적 균열 구조를 극명하게 드러낸 양 집회 참여자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동시에 최근 한국의 정치과정에서 정치동원의 매개체로 급부상한 정치유튜브의 영향력을 탐색하기 위해 수행된다.

한국의 정치과정은 또다시 대통령의 탄핵과 과면이라는 굴곡의 역사를 맞았다. 2016년 소위 국정농단 게이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같은 해 12월 국회의 탄핵과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이후, 2024년 12·3 계엄의 책임을 물어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동일한 절차를 밟아 2025년 4월 퇴장한 것이다. 두 전직 대통령이 과면에 이르는 과정에서 광장의 정치가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2016~17년과 2024~25년 집회의 양상은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과 헌법 수호를 외쳤던 촛불집회는 비교적 이념을 초월해 단일한 대오를 형성했다면, 찬탄 및 반탄 집회는 이념적 균열 구조를 고스란히 드러냈기 때문이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 반작용으로 태극기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¹⁾ 하지만 이번 찬탄 및 반탄 집회는 애초부터 진영화된 이념적 정체성을 극명하게 표출했다. 집회 진행 과정에서는 ‘찬탄·반탄 내전’이라 불릴 만큼 열성적인 집회 참여자들이 감정적 혹은 폭력적으로 충돌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²⁾ 급기야 2025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에 반발한 사람들이 서울 서부지법에 진입해 유리창을 깨부수면서 난동을 부리는 사건까지 발생했다.³⁾

이처럼 광장 혹은 거리의 정치가 극단적인 분열의 장으로 변질된 요인으로 다수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정치유튜브를 지목하고 있다. 보수 정치유튜브들이 2024년 총선의 음모론을 제기했고, 유튜브로 주로 뉴스를 시청하는 보수층이 반탄 집회에 많이 나왔다는 설문조사도 보도됐다.⁴⁾ 또한 찬탄 혹은 반탄 집회 참여자들의 유튜브 이용률이 비참여자보다 높았다는 통계가 제시되기도 했고⁵⁾, 탄핵 기간(2024년 12월 3일~2025년 4월 4일)에 공중파를 포함해 양 집회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정치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가 가파르게

1) 장우영, “촛불집회의 지속과 변화: 역사적 제도주의의 시작에서”, 『한국정치연구』, 제27권 제3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8, pp. 109–144.

2) 서지원, “좌표 찍히자 “식당 불 지른다” 문자 떴다…찬탄·반탄 극한 내전”, 『중앙일보』, 2025년 1월 14일.

3) 방덕현 외, “尹구속에 지지자들 서부지법 난입…45명 현행범 체포”, 『연합뉴스』, 2025년 1월 19일.

4) Park, Ju-min and Tom Bateman, “Inside South Korea's Right-Wing YouTube World Openly Embraced by Yoon”, 『Reuters』, 2024년 12월 16일.

5) Oh, Kyoung Mi, “Political Polarization Manifests on YouTube – Hardcore Supporters on Both Sides More Likely to Be YouTube Subscribers, YouTube Users More Willing to Reject Constitutional Court Ruling”, 『Open Net Korea』, 2025년 4월 24일.

증가했다는 보도도 나왔다.⁶⁾ 이는 정치유튜브에서 제기된 주장이나 담론이 정치적 양극화라는 지형 속에서 지지층의 결집과 동원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강하게 내포한다.

그간 국내에서는 정치유튜브가 뉴스 시청이나 정보 검색의 원천으로 부상한 이후, 그 이용 혹은 구독의 정치사회적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들이 꾸준히 축적됐다.⁷⁾ 특히 정파적 정치유튜브 이용이 정치적 양극화를 이끈다는 실증적인 연구들이 확산돼 큰 주목을 받았다.⁸⁾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정치유튜브와 오프라인 정치참여와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작업에는 다소 소홀했다. 나아가 언론을 통해 정치유튜브 이용자 혹은 구독자들의 찬탄 및 참여가 두드러졌다는 보도가 발표됐음에도,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학술적인 연구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정치유튜브 채널의 구독이 찬탄 혹은 반대 집회의 참여를 촉진했는가”라는 연구질문을 제기하고, 그 해답을 구한다. 이 과정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둔다. 첫째, 정치유튜브 구독이 가져오는 온라인 네트워크 동원론의 가능성을 확인 한다. 이미 정치유튜브 채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하나의 팬덤화된 공동체로 기능하고 있다. 즉 정치유튜버가 팬덤의 대상이자, 정치유튜브 채널이 정서적 결속을 바탕으로 한 상상된 공동체(imagined community)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⁹⁾ 이러한 상황은 일반적으로 온라인 네트워크가 정당이나 시민단체와 달리 느슨한 연대에 기초한다는 주장과 달리 팬 행동주의(fan activism)가 함의하듯이,¹⁰⁾ 정치유튜브 채널이 이념적 결속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오프라인 정치동원의 매개체가 됐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6) 김아영·최승영, “유튜브 구독자 증가, ‘찬탄’ 1300만 ‘반탄’ 1100만 박빙”, 『한국기자협회』, 2025년 7월 8일.

7) 박상현 외, “유튜브 정치·시사 채널 이용이 정치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0권 제9호, 한국콘텐츠학회, 2020, pp. 224–237; 송경재, “정치 유튜브 이용자와 정치참여 의식에 관한 연구: ICT의 정치참여 효과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제20권 제1호,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22, pp. 297–334.

8) 장승진·한정훈, “유튜브는 사용자들을 정치적으로 양극화 시키는가 주요 정치 및 시사 관련 유튜브 채널 구독자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현대정치연구』 제14권 제2호,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21, pp. 5–35; 엄기영 외, “유튜브 뉴스의 사회적 시청 과정에서 정치표현이 정치적 태도극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제69권 제1호, 한국언론학회, 2025, pp. 39–78; 함민정·이상우, “유튜브 정치동영상의 선택적 노출과 정치적 태도극화: 정치성향별 내집단 의식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1권 제5호, 한국콘텐츠학회, 2021, pp. 157–169.

9) Anderson, Benedict,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2006.

10) Barnes, Renee and Renée Middlemost, “Hey! Mr Prime Minister!: The Simpsons Against the Liberals, Anti-fandom and the Politics of Against”,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66, No.8, 2022, pp. 1123–1151; Jenkins, Henry, “Cultural Acupuncture: Fan Activism and the Harry Potter Alliance”, Lincoln Geraghty, ed., *Popular Media Cultures Fans, Audiences and Paratexts*, London: Palgrave MacMillan, 2012, pp. 206–229.

정치유튜브 구독자는 단순한 이용자와 달리 댓글이나 후원을 통해 동일한 이념적 정체성과 소속감을 형성한 네트워크에 속한 개인들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개인들이 찬탄 혹은 반탄 집회 참여의 주요 행위자였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정치유튜브 채널이 새로운 정치동원의 메커니즘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규명한다는 의미가 있다.

둘째, 분석대상은 찬탄 및 반탄 집회 참여자로 한정한다. 물론 일반 대중을 제외했기 때문에 분석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단순한 집회의 참여 여부가 아닌 참여의 강도를 추론하는 시도는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보수 및 진보 정치유튜브 구독의 영향을 명확하게 규명한다는 장점이 있다. 나아가 정치유튜브 구독자는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직접 기입한 채널명에 기초해 기존의 방송사나 신문사가 아닌 순수하게 개인이 운영하는 독립 채널을 대상으로 보수 및 진보로 분류하는 과정을 거쳤다.

II. 이론적 논의 및 기존 연구 검토

1. 이념화된 정치유튜브의 성장과 정치화, 그리고 찬탄 및 반탄 집회

한국에서 유튜브는 단순 정보나 즐거움을 전달하는 플랫폼을 넘어 이미 여론 형성의 허브로 부상했다. 유튜버들이 만들어내는 콘텐츠가 뉴스 정보처럼 유통 및 소비되기 때문이다. 2023년 발행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응답자의 53%가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46개 조사 대상국의 평균(30%)보다 23%나 높은 결과이다.¹¹⁾ 물론 유튜브는 확인된 사실을 정제해 뉴스로 제공하는 언론사의 저널리즘이나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많은 한국의 대중들은 유튜브를 통해 뉴스와 유사한 시사 정보를 습득하고 있고, 심지어 뉴스를 전문적인 언론이 생산하는 것에 한정해 인식하지 않는 경향도 보였다. 이는 온라인상의 뉴스 소비자들이 유튜브 채널도 언론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함의한다.¹²⁾ 현재는 전통 미디어 역시 자사의 뉴스나 프로그램을 온라인에 적합한 형태로 편집해 유튜브에 유통하거나 라이브 스트리밍의 방식으로 뉴스를 송출하고 있다.

이처럼 유튜브 채널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의 정치과정은 소위 시사 논객

11) 정철운, “‘유튜브로 뉴스 본다’ 세계 1위 대한민국,”『미디어오늘』, 2023년 10월 04일.

12) 유용민, “유튜브 시사정치 채널 이용자와 뉴스 관점에 관한 탐색적 연구”,『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1권 제4호, 한국콘텐츠학회, 2021, pp. 628-644; 임영호 외, “온라인 뉴스 이용자와 뉴스 이용,”『한국언론학보』, 제52권, 제4호, 한국언론학회, 2008, pp. 179-204.

으로 불리는 개인 정치유튜버의 영향력 또한 막강해지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이미 이념적 기업가(ideological entrepreneur)로 명명되는 정치유튜버는 특정한 이념의 생산과 전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주체로 부상했다.¹³⁾ 한국에서는 ‘여의도 권력’ 위에 ‘유튜브 권력’이라는 비판적 논평이 나올 만큼,¹⁴⁾ 강성적인 이념에 기댄 정치유튜버는 정당 내 공천을 포함한 의사결정도 좌지우지할 정도의 위상을 과시 중이다. 그 결과 정치유튜버와 정치인의 공생관계도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진보 성향의 정치유튜브 채널인 ‘새날’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주 출현해 큰 주목을 받으면서 구독자를 늘린 경우이다.¹⁵⁾ 정치인은 제도권 언론보다 특정한 이념의 설파자인 정치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강성 지지층들로부터 인지도를 쌓고, 정치유튜버는 구독자를 늘려 수익을 얻는 상생의 구도가 정착한 것이다. 이는 제도권 언론의 형식적 제약보다 더 과감하면서도 자극적인 메시지 확산이 가능한 정치유튜브가 강성 지지층을 겨냥해 정치인들의 입지를 다지는 플랫폼이 되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미 2023년 강준만 교수는 정치유튜브가 강성 지지층을 겨냥해 증오나 혐오를 부추기는 매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았고, 실제로 같은 해 출간한 저서를 통해 진보를 대표하는 김어준의 정치유튜브 채널을 “음모론을 조작하는 정치 무속의 세계”라고 진단하기도 했다.¹⁶⁾ 그러나 정치유튜브가 음모론과 특정한 정파적 이념을 형성 및 전파하는 창구라는 비판적인 의견 속에서도, 그 성장은 폭발적이다. 보수 및 진보를 대변하는 김어준과 고성국의 채널은 2025년 9월 22일을 기준으로 구독자 수 각각 223만 명과 131만 명을 기록 중이다. 이는 2023년의 각각 50만 명과 80만 명과 비교할 때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구독자가 증가했다는 점을 보여준다.¹⁷⁾

이처럼 정치유튜브의 성장과 맞물린 정치화는 2024년 12·3 계엄 이후에 개최된 찬탄 및 반탄 집회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양 진영의 정치유튜버들은 2015년 1월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후의 약 열흘 동안 서울 한남동 관저로 집결해 당시 찬탄 및 반탄 집회의 상황을 생중계하는 경쟁을 벌였다. 보수 정치유튜버들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대통령 체포가 불법이라는 영상을, 그리고 진보의 경우는 체포 과정을 생중계하는데 열

13) Finlayson, Alan, “YouTube and Political Ideologies: Technology, Populism and Rhetorical Form”, *Political Studies*, Vol. 70, No.1, 2022, pp. 62-80.

14) 정윤성, ‘여의도 권력’ 위에 ‘유튜브 권력’...한국 정치 뒤흔드는 ‘정치 상왕’ 김어준-고성국“, 『시사저널』, 2025년 9월 26일.

15) 위치혜·박자경, “유튜버·정치인 공생...그들만의 ‘썰’로 팬덤·혐오정치 증폭“, 『매일경제』, 2024년 7월 14일.

16) 강준만, 『정치 무당 김어준: 그 빛과 그림자』, 서울: 인물과 사상사; 정윤성, 앞의 기사.

17) 정윤성, 위의 기사.

을 올렸다. 당시 양 진영별 정치유튜버 간에 마찰이 생길 때면 이용자들은 슈퍼챗(super chat)을 날리면서 열렬히 응원하기도 했다.¹⁸⁾

나아가 이념적으로 양분화된 정치유튜브가 집회 참여를 추동하는 정치동원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정황들도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먼저 정치유튜브로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탄핵 국면에서 불거진 극단적 주장과 의혹 제기에 더 쉽게 동조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탄핵을 반대하는 정치유튜브 구독자의 70.8%가 “선관위 부정선거를 사실”로 믿고, 탄핵을 찬성하는 경우는 62.5%가 “계엄 때 1만 명을 죽인다는 계획을 사실로 믿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이다.¹⁹⁾ 그리고 12·3 계엄 이후의 탄핵 기간에 찬탄 혹은 반탄을 지지하는 정치유튜브의 구독자 수가 가파르게 성장했다는 점도 하나의 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 한국기자협회의 자체적인 조사에 의하면, 탄핵 국면에서 찬탄 채널의 구독자는 1,305만 6,000명 늘어났고, 반탄의 경우는 같은 기간 1,103만 3,000명 증가했다.²⁰⁾ 특히 보수 진영을 대변하는 ‘팬앤마이크TV’의 구독자 수는 55만 4,300명(47.4%)이 급증했다.²¹⁾

해당 조사들은 개인 정치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일반 방송사 혹은 신문사가 재가공해 제공하는 채널도 포함했지만, 개인 정치유튜브 구독이 새로운 미디어로 기능해 집회 참여를 촉진하는 연결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특히 반탄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부정선거 개입을 제도권 언론이 말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내놓으며, 정치유튜브를 통해 뉴스만 시청한다는 집회 현장의 인터뷰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²²⁾ 제도권 언론이 아니라 이념화된 개인 정치유튜브 채널의 이용 혹은 구독이 반탄 집회 참여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2. 정치동원의 매개체로 부상한 정치유튜브: 팬덤화된 이념적 및 정서적 공동체

웹 2.0에 기반을 둔 뉴미디어의 등장이 대중들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한다는 논의는 일찍이 이론적 및 경험적으로 증명됐다. 그 핵심은 개방성과 상호작용성을 기반으로 한 디

18) 박지영·김도윤, “체포 난리통 한남동에 쏟아진 슈퍼챗...이념과 결합한 유튜브”, 『헤럴드경제』, 2025년 1월 16일.

19) 박서연, “尹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 64.5% ‘유튜브’로 뉴스 본다”, 『미디어오늘』, 2025년 4월 4일.

20) 김아영·최승영, 앞의 기사.

21) 최승영·김아영, “지난 6개월 계엄·탄핵에... 유튜브 구독 지형이 혼들렸다”, 『한국기자협회』, 2025년 7월 2일.

22) 박지영·김도윤, 위의 기사; 오정우, “윤 소식, 유튜브로만 봐”...반탄집회 확증편향 우려”, 『뉴시스』, 2025년 1월 16일.

지털 네트워크가 단순한 정보 소비자에 머물렀던 일반 대중을 달톤(Dalton)의 지적한 관여적 시민(engaged citizen)으로 거듭나게 해 온·오프라인상의 정치참여를 이끈다는 것이다.²³⁾ 특히 SNS와 유튜브로 대변되는 디지털 네트워크는 2008년 및 2016–17년 촛불집회 참여 혹은 온라인을 매개로 한 사회운동의 기폭제가 됐다.²⁴⁾ 이미 디지털 네트워크가 대중의 대규모 시위 혹은 사회운동을 추동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하지만 이전의 촛불집회와 찬탄 혹은 반탄 집회에서 나타난 양상을 달랐다. 2016~17년 촛불집회를 계기로 한국에서는 네그리(Negri)와 하트(Hardt)²⁵⁾의 논의를 원용해 집회 참여자를 다중(multiple)으로 규정하는 시도들이 확산됐다.²⁶⁾ 즉 정당이나 노동조합 등과 같은 전통적 네트워크의 동원 없이도 디지털 미디어에서 자발적 혹은 자율적으로 이슈의 공론화, 연대 및 직접 행동을 위한 자원을 마련하는 탈중심적 집합행동의 흐름이 형성됐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사회운동론에서는 집합행동의 개인화²⁷⁾라고 명명했으며, 집회 참여자는 느슨하지만 광범위하게 상시적으로 연결된 연결민(networked citizen)으로 불리기도 했다.²⁸⁾ 그러나 앞선 논의에서 확인했듯이, 정치유튜브의 성장과 정치화의 결과로 찬탄 및 반탄 집회의 참여자는 다중에서 다시 정치유튜브 네트워크에 의해서 동원될 가능성을 보였다. 이는 정치유튜브라는 디지털 네트워크가 과거 정당, 언론, 시민사회 단체처럼 연대감과 결속력을 바탕으로 집회 참여를 설득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내포한다.

문제는 개방성과 상호작용을 담보하지 않고, 이념적으로 경도된 정치유튜브 네트워크에 의한 정치동원이 공론장의 질적 저하와 함께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점이다. 일찍이 SNS의 확산 속에서 디지털 네트워크가 유사한 의견을 가진 끼리 집단(like-minded

23) 이소영, “웹 2.0시대 온라인 미디어의 정치적 역할”, 『동서연구』, 제24권 2호,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2. pp. 89–116; 조진만, “정보화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효과: 경험적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45집 제5호, 한국정치학회, 2011, pp. 273–296; Dalton, Russell, “Citizenship Norms and the Expansion of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Studies, Vol. 56, No. 3, 2008. pp. 76–98.

24) 장우영, 앞의 논문; Yi, Jinkyung, “The Flow of the Masses and the Candlelight Demonstrations in South Korea”, Korea Journal, Vol. 60, No. 3, 2020, pp. 218–272.

25) Negri, Antonio and Michael Hardt 지음, 조정환 외 번역, 『다중』, 서울: 세종서적, 2008.

26) 장우영 외, 『촛불집회와 다중운동』,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9.

27) 최재훈, “집합행동의 개인화와 사회운동 레퍼토리의 변화”, 『경제와 사회』, 제113호(봄), 2017, pp. 66–99; Bennet, Lance and Alexandra Segerberg, “Digital Media and the Personalization of Collective Action: Social Technology and the Organization of Protests against the Global Economic Crisis”,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Vol. 14, No. 6, 2011, pp. 770–799.

28) 장훈, “촛불의 정치와 민주주의 이론: 사실과 가치의 긴장과 균형”, 『의정연구』, 제22권 제2호, 2017, pp. 38–66.

people)으로 기능하고, 이념적 편향성에 기초해 검증되지 않는 담론의 생산과 유통지가 될 경우에 오히려 참여 민주주의의 확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²⁹⁾ 이제는 정치유튜브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원천으로 지목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개방성과 이질적이고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수평적인 상호작용과 공유를 지향했던 디지털 네트워크가 정치유튜브에 의해 왜곡 및 변질됐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치유튜브가 디지털 정치동원의 양상을 변화시킨 배경으로 최근의 학자들은 채널의 팬덤화에 주목하고 있다.³⁰⁾ 즉 콘텐츠 제작자인 정치유튜버가 팬덤의 강한 정서적 혹은 이념적 유대를 표출하는 팬덤의 대상으로 진화한 동시에 정치유튜브 채널이 팬덤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다. 정치팬덤(potitical fandom) 연구는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에 정치참여와 대중문화의 소비 방식이 융합되면서 정서적이면서도 비이성적인 형태의 정치적 몰입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했다.

샌드보스(Sandvoss)³¹⁾의 정의를 빌리면, 정치팬덤은 정치적인 것, 즉 정치인, 정당, 이념 등 팬덤의 대상이 제공하는 “대중적 서사 혹은 텍스트에 대한 정기적이면서도 정서적으로 몰입하는 소비”로 규정된다. 즉 정치적 지지 행위를 문화 텍스트 소비의 일환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팬덤의 행태는 상호작용적 디지털 미디어가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이 되면서 BTS ARMY의 문화예술 팬덤처럼, 정치적인 대상이 제시하는 텍스트에 대한 강한 감정(affect)적 투자와 소비(consumption), 자신의 해석을 바탕으로 한 맴(memes)·GIF·팬 비디오·팬 팩션 등의 2차 생산(productivity), 공동체(community) 형성으로 나타난다. 다만 정치팬덤은 정치사회적 문제의 변화를 주장하는 논쟁(contestation)을 내놓는다는 점에서 문화예술 팬덤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물론 문화예술 팬덤도 정

29) 도묘연a, “SNS 이용자 특성과 선거참여 행태 분석: 18대 대선의 사례”, 『국제정치연구』, 제18권 제1호,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5, pp. 175–196.

30) 도묘연·김찬우a, “보수 및 진보 정치유튜버 팬덤의 특성에 대한 비교 분석”, 『현대정치연구』, 제18권 제2호,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25, pp. 93–128; 도묘연·김찬우b, “보수 및 진보 정치유튜버 팬덤은 어떠한 담론을 형성했는가?: 22대 총선의 사례”, 『국제정치연구』, 제28권 제3호,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25, pp. 67–198; Finlayson, Alan, “YouTube and Political Ideologies: Technology, Populism and Rhetorical Form”, Political Studies, Vol. 70, No. 1, 2022, pp. 62–80; Jurg, Danie, Marc Tuters and Ike Picone, “Alex, DO NOT BACKPEDAL ON SANDY HOOK!: Reactionary Fandom, Cancel Culture, and the Possibility of ‘Audience Capture’ on YouTube”, Television & New Media, Vol. 26, No. 1, 2025, pp. 58–73; Topinka, Robert, “Conspiracy Theories Should Be Called Spoiler Alerts: Conspiracy, Coronavirus and Affective Community on Russell Brand’s YouTube Comment Section”, New Media & Society, Vol. 27, No. 7, 2024, pp. 1–20; Wurst, Christina, “Bread and Plots: Conspiracy Theories and the Rhetorical Style of Political Influencer Communities on YouTube”, Media and Communication, Vol. 10, No. 4, 2022, pp. 213–223.

31) Sandvoss, Cornel, Fans: The Mirror of Consumption, Cambridge: Polity Press, 2005, p. 8.

치사회적 현안에 대한 의견을 표출한다면, 정치화된 팬덤(*politicized fandom*)으로 변모된다.³²⁾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념적 기업가로 명명되는 정치유튜버는 구독자 혹은 이용자들이 정치적 서사나 텍스트를 규칙적이면서도 감정적으로 소비 및 생산하는 팬덤의 대상이 되었고, 해당 채널은 팬과 팬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네트워크이자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게 됐다고 볼 수 있다.³³⁾ 그 결과 정치유튜브 채널은 팬덤과의 정서적 유대를 바탕으로 정치적 불만을 표출하고, 단순한 텍스트와 소비 및 생산을 넘어 실제 온·오프라인에서 팬 행동주의로 대변되는 집단적 행동을 유발하면서 정치동원의 효과적인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게 된다.

하지만 팬덤 공동체로 진화한 정치유튜브에 의한 정치동원은 정서적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비합리적인 정치행태를 유발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 중심에는 특정한 이념에 경도된 정파적 정치유튜버가 만들어내는 정서적 서사가 있다. 영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극우 성향의 정치유튜버 수사를 분석한 연구³⁴⁾에 의하면, 정치유튜버는 강렬한 감정적 유대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포퓰리즘(*populism*)적인 우리 대 그들이라는 이분법을 구축하고, 특히 음모론을 활용해 공동체 구성원들이 외부의 비판에 맞서 자신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는 방어적인 담론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서사는 적대적인 타자의 설정과 반대 정치의 구심점을 제공하면서 안티팬덤(*anti-fandom*) 행동주의, 즉 단순히 특정 대상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넘어서는 증오와 혐오라는 부정적 감정을 통해 집단 정체성이 형성되면서 온·오프라인상의 정치참여를 추동하는 요인이 된다. 적대감의 네트워크화가 직접적 행동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극단적 견해를 증폭시키는 에코 챔버(*echo chamber*)를 통해 이념적 혹은 정서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정치유튜버의 이념적 설파가 대중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정치참여를 이끄는 방아쇠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12·3 계엄 이후 개최된 찬탄 및 반탄 집회에서 나타난 정치유튜브 채널의 동원력에 주목한다. 보수 혹은 진보 정치유튜버의 이념적 주장에 설득된 사람들 이 집회에 많이 참여했을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정치팬덤적 관점에서 볼 때, 포퓰리즘적 이분법과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한 환경에서는 중요한 정치적 논란이나 사건이 발생했

32) Dean, Jonathan, "Politicising Fandom", *British Journal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9, No. 2, 2017, pp. 408–424.

33) 도묘연·김찬우a: 도묘연·김찬우b, 앞의 논문.

34) Finlayson, op.cit; Wurst, op.cit.

을 때, 특정한 대상에 대한 팬덤과 안티팬덤은 동시에 온·오프라인에서 동원된다.³⁵⁾ 이번 찬탄 및 반탄 집회 역시 보수 혹은 진영의 지지자나 반대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정치인과 정당 및 정치유튜버는 이미 공생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진영별로 특정한 정치인 혹은 정치유튜버 지지자들이 상호 얹혀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진영별로 양분화된 정치유튜브 채널의 정치동원력 더욱 강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3. 통제변수의 검토

찬탄 및 반탄 집회 참여의 요인으로 정치유튜브의 동원력에 주목하는 이 연구는 정치유튜브 구독을 독립변수로 설정한다. 구독자는 이용자와 달리 채널에 대한 충성도, 즉 알림이나 댓글을 통해 앞으로도 채널의 콘텐츠를 소비하겠다는 의지가 높은 집단이다.³⁶⁾ 정치팬덤적 관점에서 구독자는 정치유튜버에 대한 이념적 혹은 정서적 유대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소비 및 생산하는 팬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도 볼 수 있다. 그만큼 정치유튜버의 주장에 설득되어 실제 집회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유튜브 구독을 찬탄 혹은 반탄 집회 참여의 강도, 즉 참여 횟수를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통제변수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중의 시위 참여는 자원모델(basic resource Model), 시민자발성 모델(civic voluntarism), 사회자본론(social capital) 등을 수용한 다양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다차원적인 요인에 의해서 촉발된다고 검증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제변수에 대한 일정한 고려가 전제되어야만, 정치유튜브 구독의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통제변수는 찬탄 및 반탄 집회의 특수성과 촛불집회의 참여에 영향 미친 변수를 중심으로 설정했다. 사실 이번 탄핵 국면에서 확산한 양 집회는 촛불집회처럼 반응적 집회의 성격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집회와 시위는 비제도적 정치참여(unconventional participation)이자 집합적인 저항적 행위 혹은 사회운동으로 정의된다. 이 경우 환경 보호나 인권 증진 등 굳어진 사회구조적 불만에 대해 지속적이면서도 조직적인 저항을 표시하는 집회나 시위와 달리 촛불집회는 특정한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촉발된다는 차이가 있다. 즉 일정한 기간 동안 개최되지만, 시위를 촉발한 특정한 사건이나 이슈가 해결되면 사라지는 성격

35) Baran, Şebnem, "Populist Fandoms and Anti-Fandoms: Politics, Polarization, and Celebritization in Turkey", JCMS, Vol. 63, No. 2, 2024, pp. 183-188.

36) 김아영·최승영, 앞의 기사.

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일반적 집회나 시위와 달리 감정 역할이 집회 참여의 중요한 동기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감정적 집회(new emotional movement) 혹은 유발성 집회(valence movement)로 불리기도 한다.³⁷⁾ 따라서 찬탄 및 반탄 집회 역시 1·2·3 계엄이라는 예상하지 못한 사건에 의해 촉발됐기 때문에 촛불집회 참여에 영향을 미쳤다고 검증된 변수들을 중심으로 다음의 5가지 차원에서 통제변수를 설정했다.

첫째, 이번 찬탄 및 반탄 집회는 보수 혹은 진보 진영별로 극명한 이념적 균열 구조를 드러낸 만큼, 정치적 정향을 고려해야 한다. 주관적 이념은 촛불집회 연구자들에 의해서 그 영향력이 증명됐으며, 진보적 이념은 2008년과 2016~17년 촛불집회의 참여를 이끄는 주요한 요인이기도 했다.³⁸⁾

둘째, 특히 감정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찬탄 및 반탄 집회처럼 1·2·3 계엄이라는 갑작스러운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개최되는 경우에 감정의 여파가 집회 참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감정은 시위나 집회와 같은 집합행동을 심리적 및 인지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연구³⁹⁾에 의해서 주목을 받았다. 이 경우 정부의 정책이나 결정이 정의롭지 않다는 부정적 인식의 틀, 즉 박탈감이나 좌절로 발생하는 분노는 시위와 같은 직접적 행동을 이끄는 핵심적인 변수로 지목됐다. 2016~17년 촛불집회 참여에서도 국정농단 게이트에 대한 분노와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불만족의 영향력은 확인됐다.⁴⁰⁾

나아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감정도 통제변수에 포함했다. 일반적으로 지지 정당은 정치적 정향의 변수로 규정된다. 하지만 집합행동에서 감정과 정체성을 강조한 캠슨(Gamson)⁴¹⁾의 논의를 원용하면, 이번 찬탄 및 반탄 집회는 이념적 대립 구도 속에서 계엄과 탄핵에 대한 분노를 포함해 우리 편 혹은 상대편을 구분하는 정체성에 기반을 둔 집합행동의 단면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자기편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양대 정당에 대한 감정은 집회 참여의 정체성적 동기를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다.

셋째, 평상시 정치적 태도나 행동을 대변하는 정치적 관여 변수로는 결사체 활동, 정치 참여 방식, 정치효능감을 고려해야 한다. 이들 세 가지 변수는 사회자본론과 시민자발성

37) 도묘연b, “2016년~2017년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참여의 결정요인”, 『의정연구』, 제23권 제2호, 한국의회 발전연구회, 2017, pp. 109~146.

38) 이갑윤, “촛불집회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정치적 정향과 태도”, 『현대정치연구』, 제9권 제1호, 서강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0, pp. 95~120; 도묘연b, 위의 논문.

39) Gamson, William A., “The Social Psychology of Collective Action”, Morris, Aldon D. and Carol McClurg Mueller eds., *Frontiers in Social Movement Theory*,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2, pp. 53~76.

40) 도묘연b, 앞의 논문; 이현우, “촛불집회 참여강도 분석: 정체성, 분노, 효율성”, 한국선거학회·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공동학술회의, 서울, 2017.

41) Gamson, op. cit.

모델을 수용한 연구들에 의해서 시위 참여를 추동하는 핵심적 요인으로 검증된 동시에 촛불집회 참여의 결정요인으로도 밝혀졌기 때문이다. 특히 정당·노동조합·시민단체의 정치적 결사체와 친목모임·종교조직·취미동호회 등의 비정치적 결사체는 전통적으로 정치 동원의 오프라인 매개체이다. 즉 사회적 네트워크에 속한 개인이 비용의 절감을 포함해 동료들로부터의 압박이나 연대감에 의해서 시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⁴²⁾ 2016~17년 촛불집회의 경우에 정치적 결사체 활동은 촛불집회 참여를 촉진하는 직접적 요인이었던 반면, 비정치적 결사체 활동은 사회자본론에서 강조하는 참여의식과 공동체 의식의 발현을 통해 참여를 이끄는 간접적 요인으로 검증된 바 있다.⁴³⁾

결사체 활동 이외에 정치적 효능감과 평상시 정치참여 방식도 촛불집회 참여를 이끄는 요인으로 확인됐다. 정치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개인의 주관적 인식으로 정의되는 정치효능감(political efficacy)은 정치참여를 추동하는 전통적인 요인이다. 이 경우 정치를 이해하는 동시에 정치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내적 효능감 (internal political efficacy)과 정부가 시민의 의견에 반응할 것으로 믿는 외적 효능감 (external political efficacy)의 영향은 다르게 나타난다.⁴⁴⁾ 2016~17년 촛불집회의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 즉 내적 효능감이 집회 참여를 추동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와 함께 정치문제에 대한 토론이나 정치·시사모임 참여, 거리 집회와 같은 비제도적 정치참여보다 제도적인(conventional) 투표 참여도 촛불집회의 참여를 이끄는 요인으로 확인됐다.⁴⁵⁾

넷째, 기본적으로 사회경제적 요인은 필수적으로 설정되는 통제변수이다. 자원모델에서 는 개인이 시위나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혹은 신체적 여유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사적 가용성(biological availability), 즉 연령, 교육, 자녀 유무, 가족 소득, 학생 지위 및 고용 상태 등을 강조한다.⁴⁶⁾ 2008년 촛불집회에서는 참여자들이 높은 교육과 소득을 가졌다는 연구가 발표됐다. 그러나⁴⁷⁾ 2016~17년의 경우는 교육과 소득이 촛불집회의 참

42) Verba, Sidney, Kay Scholzman and Henry E. Brady, *Voice and Equality: Civic Voluntarism in American Politic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43) 도묘연c, “결사체 활동, 시민성 그리고 촛불집회 참여의 경로구조”, 『현대정치연구』, 제10권 제2호, 서강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7, pp. 5~41.

44) Pollock, Phillip H., “The Participatory Consequences of Internal and External Political Efficacy: A Research Note”, *The Western Political Quarterly*, Vol. 36, No. 3, 1983, pp. 400~409; 홍혜승·류은영, “신뢰가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인사행정학보』, 제14권 제2호, 한국인사행정학회, 2015, pp. 131~155.

45) 도묘연b, 앞의 논문.

46) Schussman, Alan and Sarah A. Soule, “Process and Protest: Accounting for Individual Protest Participation”, *Social Forces*, Vol. 84, No. 2, 2005, pp. 1083~1108.

정치유튜브 구독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및 반대 집회의 참여를 촉진했는가?: 집회 참여자를 중심으로 (도묘연)

여를 이끄는 요인으로 도출되지 않았고, 남성의 영향력만 확인됐다.⁴⁸⁾

III. 연구설계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정치유튜브 구독과 찬탄 및 반탄 집회 참여 간의 연관성을 추론하기 위한 자료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했다. 사실 이번 찬탄 및 반탄 집회는 2024년 12·3 계엄 이후부터 2025년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되기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산발적이면서도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됐다. 때문에 집회 참여자를 추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열렸다는 점을 고려해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2025년 6월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그리고 6개 권역별, 즉 서울, 경기/강원권(경기, 강원, 인천), 충청권(충북, 충남, 대전, 세종), 호남권(전북, 전남, 광주, 제주), 경북권(경북, 대구), 경남권(경남, 부산, 울산)의 인구 현황에 따른 비례할당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한 것이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9%였다. 실제 온라인 조사는 주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2025년 7월 2일~21일까지 수행됐고, 양 집회에 참여한 최종 조사대상은 각각 400명씩 총 800명이었다.

이러한 설문조사 자료의 활용은 조사대상을 집회 참여자로 한정해 참여의 강도를 추정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일반 대중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이념 진영별로 나뉜 집회 참여자들의 특성을 확인하는 과정도 포함된다. 따라서 분석방법은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된다. 첫째, 정치유튜브 구독과 통제변수를 중심으로 한 양 집회 참여자들의 특성은 분산분석과 χ^2 -test를 통해 비교해 제시한다. 둘째, 보수 및 진보 정치유튜브 구독과 통제변수가 찬탄 혹은 반탄 집회의 참여 강도에 미친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한다.

2. 보수 및 진보 정치유튜브 구독의 유형화

보수 및 진보 정치유튜브 구독의 영향력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구독자를 유

47) 조기숙·박혜윤, “광장의 정치와 문화적 충돌: 2008 촛불집회에 대한 경험적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4호, 2008, pp. 243~268.

48) 도묘연b, 앞의 논문.

형화하는 작업이 전제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이 연구는 분석대상을 정치 및 시사 관련 콘텐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 또는 독립 정치유튜브 채널로 한정한다. 즉 방송사나 신문사 및 인터넷 언론에 비해 편집자의 조정과 통제가 적고, 대중의 참여가 개방적인 채널만을 선택한 것이다. 이는 뉴미디어로서 유튜브의 순수성이 개인 채널에서 두드러진다는 논의⁴⁹⁾를 수용하는 동시에 제도화된 미디어에 비해 실시간 생중계나 슈퍼챗을 통해 상대적으로 제작자와 구독자 간 정서적 유대감의 형성이 수월하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즉 팬덤화된 공동체로서 정치유튜브 채널의 정치동원력을 과악하는데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정당이나 정치인 채널 역시 제도권 정치권이나 당파성에 의한 정치동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외했다.

기존 연구⁵⁰⁾에서 정치유튜브 구독 여부 혹은 이용 수준은 주로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정치유튜브 채널의 목록을 사전에 응답자들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측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영향력 있는 특정한 채널에 대한 구독만을 확인하고, 실제로 다양한 채널의 구독 패턴을 포착하지 못하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특히 1·2·3 계엄 이후에는 기존의 채널들이 경쟁적으로 이념을 설파하는 동시에 짚은총을 중심으로 새로운 채널이 생겨나기도 했다.⁵¹⁾ 때문에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식은 실제 활동하는 정치유튜브를 확인하고, 다양한 채널의 정치동원에 의해 집회 참여의 강도를 추정한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설문조사 과정에서 개인이 구독하는 정치유튜브 채널명 2개를 기입하도록 요청해 구독자의 현황을 파악했다. 그러나 채널명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누락 됐거나, 줄임만을 적는 등 정확한 채널명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했다. 또한 개인 정치유튜브 채널명을 요청했음에도 공중파나 종편, 신문사 그리고 정치·시사 이슈가 아닌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명을 기입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정확한 명칭이 아니더라도 응답자의 의도를 반영해 목록을 구축(예: 김어준⇒‘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우원재⇒‘호밀밭의우원재’)했다. 최종적으로 방송사나 신문사, 인터넷 언론사, 정당, 정치인이 운영하는 채널과 정치시사 문제와 무관한 채널은 제외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보수 및 진보 정치유튜브 구독자를 최종적으로 유형화한 결과가 <표 1>이다.

양 집회 참여자 800명 중 유튜브 채널명을 제시한 응답자는 381명이고, 이 중 보수 혹은 진보 채널명만을 2개 기입한 경우는 각각 83명(21.8%)과 92명(24.2%)이었다. 기본

49) 박상현 외, 앞의 논문.

50) 장승진·한정훈, 앞의 논문; 함민정·이상우, 앞의 논문.

51) Kim, Min-Young, “Korea’s Angry Right-Wing Youth Become YouTubers to Rail against Impeachment, Liberals and the Chinese”, 『Korea JoongAng Daily』, 2025년 2월 19일.

적으로 이들 응답자는 정치유튜브 구독자로 정의된다. 이외에도 보수 혹은 진보 정치유튜브 채널 1개와 기타 유튜브 채널(방송사, 신문사, 인터넷 언론사, 정당, 정치인, 정치·시사와 무관한 채널) 1개를 기입한 각각 62명(43명+19명, 16.3%)과 60명(40명+20명, 15.7%)도 정치유튜브 구독자로 포함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양 진영의 정치유튜브 구독자는 보수 145명, 그리고 진보 152명으로 분류됐다.⁵²⁾

〈표 1〉 보수 및 진보 정치유튜브 구독의 유형화

구분	보수 정치유튜브 구독	진보 정치유튜브 구독	기타* 유튜브 구독	합계
보수 정치유튜브 구독	83 (21.8%)	1 (0.3%)	43 (11.3%)	127 (33.3%)
진보 정치유튜브 구독	3 (0.8%)	92 (24.2%)	40 (10.5%)	135 (35.4%)
기타 유튜브 구독	19 (5.0%)	20 (5.3%)	80 (21.0%)	119 (31.2%)
합계	105 (27.6%)	113 (29.7%)	163 (42.8%)	381(100.0)

* 방송사, 언론사, 인터넷 언론사, 정당·정치인 정치유튜브, 정치·시사 이외의 유튜브 구독자임.

3. 연구모형

진영별로 정치유튜브 구독을 유형화한 〈표 1〉에 기초해 아래와 같이 연구모형을 구축했다. 독립변수는 보수/진보 정치유튜브 구독이며, 종속변수는 찬탄/반탄 집회의 참여 횟수이다. 또한 통제변수는 앞선 2장의 논의에 기초해 사회경제적 특성과 함께 정치적 정향을 대변하는 이념, 감정적 차원에서는 계엄/탄핵에 대한 분노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감정, 평상시 정치적 관여는 결사체 활동, 정치참여 방식, 정치효능감으로 구성했다.

$$y_k = \alpha + \beta^* ut + \sum_{j=1}^{13} (\gamma_j^* c_j)$$

여기서 y_k 은 찬탄/반탄 집회 참여 횟수

ut 는 보수/진보 정치유튜브 구독 여부(1=구독, 0=그 외)

c_j 는 통제변수(1=주관적 이념 평가, 2=계엄/탄핵에 대한 분노, 3=국민의힘/더불

어민주당 감정 온도, 4=정치적 결사체 활동 선호, 5=온라인 정치참여 선호,

52) 양 집회 참여자들이 구독한 정치유튜브 채널명은 〈부록〉을 참조한다.

6=외적 효능감 선호, 7=남성 더미, 8=연령, 9=4년제 대학재·졸 이상 더미,
10=500만원 이상 더미, 11=전문관리사무 더미, 12=호남 더미, 13=은 영남
더미

α , β , γ 는 추정계수를 의미함.

위의 연구모형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평상시 정치적 관여로 정의된 변수는 정치적 결사체 활동 선호, 온라인 정치참여 선호, 외적 효능감 선호로 다시 재정의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정치참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도 적극적일 수 있고, 정치적 효능감의 경우도 외적 혹은 내적인 측면이 공존할 수 있다. 이에 회귀분석에서 통제변수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변수를 재조작한 것이다. 따라서 회귀분석에서 이들 3개 변수가 음(−)으로 추정되면, 비정치적 결사체 활동, 오프라인 정치참여, 내적 효능감이 양 집회의 참여 횟수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부적인 분석변수와 그 측정방식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분석변수의 정의와 척도

구분	변수명		측정 내용	척도
종속 변수	찬탄/반탄 집회 참여 강도		참여 횟수	비율
독립 변수	진보/보수 정치유튜브 구독		〈표 1〉의 유형화 참조 ·진보 정치유튜브만 구독+진보 정치유튜브와 기타 유튜브 구독=1, 그 외=0(찬탄) ·보수 정치유튜브만 구독+보수 정치유튜브와 기타 유튜브 구독=1, 그 외=0(반탄)	명목
통제 변수	정치적 정향	주관적 이념 평가	진보 혹은 보수로 생각하는 정도 (1 진보, 6 중도 11 보수)	11단계 리커트
	감정	민주당/국힘에 대한 감정	감정 온도(0~100) 더불어민주당 감정 수준(찬탄)/국민의힘 감정 수준(반탄)	비율
		계업/탄핵에 대한 분노	대통령의 계업 선포에 대한 분노 정도(찬탄) 대통령의 탄핵 통과에 대한 분노 정도(반탄)	
	평상시 정치적 관여	온라인 정치참여 선호 ¹⁾	온라인 정치참여 수준 오프라인 정치참여 수준	7단계 리커트
		외적 효능감 선호 ²⁾	외적 효능감 수준 내적 효능감 수준	
		정치적 결사체 활동 선호 ³⁾	정치적 결사체 가입 및 활동 수준 비정치적 결사체 가입 및 활동 수준	

구분	변수명	측정 내용		척도
통제 변수	사회 경제적 요인	성별	남여/ 남자=1, 여=0	명목
		연령	만 나이	비율
		학력	초졸, 중졸, 고졸, 전문 대학재·졸, 4년제 대학재·졸, 대학원 석사재·졸, 대학원 박사재·졸/ 4년제 대학재·졸=1, 기타=0	명목
		소득	100만원 단위 11개 구간/ 500만원 이상=1, 기타=0	
		직업 ⁴⁾	전문사무관리직=1, 기타=0	
		지역	서울, 경기/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의 6개 권역 호남권=1, 기타=0/ 영남권=1, 기타=0	

- 주) 1) 오프라인은 집회와 시위, 소비자운동·불매운동·윤리적 소비활동, 시민단체나 집회 등에 후원금 기부, 공공기관(정부, 경찰서, 공공기관, 군 등)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는 수준의 평균으로, 그리고 온라인의 경우는 인터넷·SNS·유튜브 등에서 정치문제에 대한 의견 개진이나 댓글 달기, 정치인이나 공직자에게 문자나 전화 걸기를 하는 수준의 평균으로 구성함.
 2) 외적 효능감은 “정부는 나와 같은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에 관심이 없다(역코딩)”, 내적 효능감은 “나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역코딩)”에 대한 인식으로 측정함.
 3) 정치적 결사체는 정당·노동조합·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비정치적 결사체는 오프라인 취미동호회·친목모임·향우회·동창회·종친회, 자선·봉사모임, 종교 관련 모임에 가입해 활동 수준으로 구성함.
 4) 기타는 서비스, 판매, 농·어업, 기능인,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단순 노무, 주부, 학생, 실업·무직·은퇴를 포함함.

IV. 실증분석

1. 찬탄 및 반탄 집회 참여자의 특성 비교

〈표 3〉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를 중심으로 찬탄 및 반탄 참여자별로 나타난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이 연구는 성별, 연령별, 권역별로 양 집회에 참여한 각각 400명을 표본으로 추출했기 때문에 해당 변수의 사회적 특성은 동일하다.⁵³⁾ 따라서 사회경제적 변수는 학력, 소득, 직업의 특성만 비교 분석했다. 그럼에도 이

53) 조사대상인 찬탄(400명) 및 반탄(400명) 집회 참여자 중 남녀는 동일하게 각각 198명과 202명이었다. 지역 역시 서울권, 경기/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각각 76명, 141명, 41명, 43명, 39명, 60명으로 동일하다. 다만 연령의 경우는 60대와 70대 이상의 표집이 어려워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18~29세, 30세~39세, 40세~49세, 50세~59세는 동일하게 각각 59명, 61명, 67명, 79명을 표집했다. 그러나 60

들 세 가지 변수 역시 양 집회 참여자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더불어 계엄 혹은 탄핵에 대한 분노는 찬탄 및 반탄 집회 참여자들을 구분해서 조사했기 때문에 별도의 통계량 값이 없이 평균값만 제시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을 중심으로 양 집회 참여자들의 주요한 특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유튜브 구독은 양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다. 예상대로 보수 구독자는 반탄 집회 참여율(찬탄 3.3%, 반탄 33.0%)이, 반면 진보의 경우는 찬탄 집회 참여율(찬탄 31.0%, 반탄 7.0%)이 더 높았다. 단 미구독/기타 유튜브 구독자는 찬탄 집회 참여율(찬탄 65.8%, 반탄 60.0%)이 높았다. 즉 유튜브 미구독자 혹은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 언론사, 정당 및 정치인이 운영하는 정치유튜브나 일반 유튜브 구독자들도 찬탄 집회 참여율이 높았던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찬탄 집회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양한 정치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는 대중들의 참여가 많았다면, 반탄 집회에서는 보수 채널의 구독자 중심으로 참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집회 참여율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찬탄 집회의 평균 참여율은 2.49회였고, 반탄의 경우는 2.22회였다. 찬탄 집회의 참여율이 더 높았던 것이다. 실제로 양 집회의 참여 횟수는 1회에서 10회⁵⁴⁾로 확인됐으나, 6회 이상의 참여자는 찬탄 및 반탄이 각각 25명과 21명이었다. 따라서 고강도 참여자도 상대적으로 찬탄 집회에서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통제변수 중 정치적 정향과 감정의 변수 역시 양 집단 간에 차이가 도출됐다. 특히 이들 변수들은 이념적 균열구조를 반영한 양 집회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념의 경우 찬탄(4.84) 집회 참여자들이 반탄(7.69)에 비해 스스로를 더 진보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양 집회 참여자들의 국민의힘(찬탄 11.17, 반탄 40.58)과 더불어민주당(찬탄 43.20, 반탄 10.62)에 대한 감정 온도도 큰 차이가 있었다. 정당을 둘러싼 정서적 양극화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이와 함께 자료수집 방식이 다른 변수들과 달라 통계량 값을 제시할 수는 없으나, 찬탄 집회 참여자들의 계엄에 대한 분노보다(6.63) 반탄 집회 참여자들의 탄핵에 대한 분노(5.43)가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양 집회 참여자들 간에 일정한 차이가 나타났더라도, 공통적으로 상대 진영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세~69세는 각각 81명(찬탄)과 87명(반탄), 그리고 70세 이상은 53명(찬탄)과 47명(반탄)의 참여자가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54) 찬탄 및 반탄 집회의 1회 참여자는 각각 161명 대 199명, 2회는 91명 대 90명, 3회는 80명 대 60명, 4회는 18명 대 10명, 5회는 25명 대 20명, 6회는 4명 대 2명, 7회는 2명 대 3명, 8회는 3명 대 1명, 9회는 5명 대 1명, 10회는 11명 대 14명이었다.

넷째, 통제변수로 설정된 정치적 관여의 변수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오프라인 정치참여와 내적 효능감이었다. 찬탄(3.83) 집회 참여자들이 반탄(3.62)에 비해 평상시 시위와 집회를 포함해 민원제기나 서명운동과 같은 활동에 참여하는 수준이 높았던 것이다. 또한 반탄(4.35)보다 찬탄(4.63) 집회의 참여자들은 정치를 이해하는 동시에 스스로가 정치과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적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이었다. 통계량 값과 상관없이 최솟값과 최댓값(1~7) 기준으로 할 때, 전체적으로 평상시 양 집회 참여자들의 결사체 활동(정치 0.65, 비정치 1.33) 수준은 상당히 낮았다. 정치참여 수준(온라인 3.82, 오프라인 3.73)은 결사체 활동보다는 높았으나, 평균값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다만, 정치적 효능감(외적 및 내적 각각 4.49)의 수준은 평균값보다 높았다.

〈표 3〉 찬탄 및 반탄 집회 참여자의 특성 비교

(단위: 명, %)

구분		전체 800명 (100.0)	찬탄 집단 400명 (100.0)	반탄 집단 400명 (100.0)	χ^2/F
종속 변수	찬탄 및 반탄 집회 참여 횟수	2.36	2.49	2.22	3.68 (0.0553)
독립 변수	미구독/기타 유튜브 구독	503 (62.9)	263 (65.8)	240 (60.0)	$\chi^2=159.345$, $df=2$ $prob=0.0001$
	진보 정치유튜브 구독	152 (19.0)	124 (31.0)	28 (7.0)	
	보수 정치유튜브 구독	145 (18.1)	13 (3.3)	132 (33.0)	
통제 변수	정치적 정향	주관적 이념	6.26	4.84	7.69 262.35 (0.0001)
	감정	정당	더불어민주당	26.91	43.20 268.25 (0.0001)
			국민의힘	25.88	11.17 211.03 (0.0001)
		계엄에 대한 분노	400명	6.53(평균값)	-
			400명	-	5.43(평균값)
	평상시 정치적 관여	결사체 활동	정치	0.65	0.69 1.08 (0.2990)
			비정치	1.33	1.27 1.40 (0.2365)
		정치참여 방식	온라인	3.82	3.74 1.76 (0.1856)
			오프라인	3.73	3.83 4.71 (0.0303)

구분			전체 800명 (100.0)	찬탄 집단 400명 (100.0)	반탄 집단 400명 (100.0)	χ^2/F
평상시 정치적 관여	정치적 효능감	외적	4.49	4.56	4.42	1.04 (0.3070)
		내적	4.49	4.63	4.35	4.95 (0.0264)
통제 변수	학력	초졸	2 (0.3)	1 (0.3)	1 (0.3)	$\chi^2=8.8778,$ $df=6,$ $prob=0.1806$
		중졸	13 (1.63)	7 (1.75)	6 (1.5)	
		고졸	161 (20.13)	82 (20.5)	79 (19.75)	
		전문대재/졸	128 (16.0)	63 (15.8)	65 (16.3)	
		4년제대재/졸	401 (50.1)	215 (53.8)	186 (46.5)	
		대학원석사재/졸	69 (8.6)	25 (6.3)	44 (11.0)	
		대학원박사재/졸	26 (3.3)	10 (2.5)	16 (4.0)	
	소득	100만원 미만	23 (2.9)	14 (3.5)	9 (2.3)	$\chi^2=4.0543,$ $df=10,$ $prob=0.9449$
		100~199만원	63 (7.9)	29 (7.3)	34 (8.5)	
		200~299만원	106 (13.3)	52 (13.0)	54 (13.5)	
		300~399만원	129 (16.1)	63 (15.8)	66 (16.5)	
		400~499만원	95 (11.9)	48 (12.0)	47 (11.8)	
		500~599만원	108 (13.5)	52 (13.0)	56 (14.0)	
		600~699만원	67 (8.4)	36 (9.0)	31 (7.8)	
		700~799만원	57 (7.1)	31 (7.8)	26 (6.5)	
		800~899만원	68 (8.5)	36 (9.0)	32 (8.0)	
		900~999만원	26 (3.3)	14 (3.5)	12 (3.0)	
	직업	1,000만원 이상	58 (7.3)	25 (6.3)	33 (8.3)	$\chi^2=2.0492,$ $df=1,$ $prob=0.1523$
		전문사무관리직	462 (57.8)	241 (60.3)	221 (55.3)	
		기타	338 (42.3)	159 (39.8)	179 (44.8)	

2. 보수 및 진보 정치유튜브 구독이 찬탄 혹은 반탄 집회의 참여 강도에 미친 영향

〈표 4〉는 정치유튜브 구독과 통제변수가 12·3 계엄 이후에 개최된 집회 참여에 미친 영향력을 추론한 결과이다. 즉 통제변수와 함께 진보 정치유튜브 구독이 찬탄 집회, 그리고 보수 정치유튜브 구독이 반탄 집회의 참여 강도에 미친 영향력을 분석한 것이다.

먼저 찬탄 집회 참여의 강도를 추론한 [모형 1]에서는 통계적 유의 수준이 다소 낮지

만, 진보 정치유튜브 구독($\beta=0.3885$, $t=1.74$)의 정(+) 효과가 확인됐다. 또한 통제변수에서는 정치적 결사체 활동 선호($\beta=0.4507$, $t=4.84$)의 정(+)의 영향력과 함께 주관적 이념 ($\beta=-0.1125$, $t=-2.47$), 국민의힘에 대한 감정($\beta=-0.0073$, $t=-2.20$), 그리고 온라인 정치참여 선호($\beta=-0.2917$, $t=-1.89$)의 부(-)의 영향력도 확인됐다. 즉 진보 성향의 정치유튜브를 구독하면서 이념적으로 진보적일수록, 취미·친목단체나 종친회 및 향우회와 같은 비정치적 결사체보다 정당·노동조합·결사체와 같은 정치적 결사체에 가입해서 활동할수록, 국민의힘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높을수록 그리고 평상시 민원제기나 집회와 시위 등을 포함해 오프라인상의 다양한 정치참여를 통해 자기 의사를 표현할수록 찬탄 집회에 더 많이 참여했다는 것이다. 추정 계수의 절댓값에서는 정치적 결사체 활동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변수의 영향력은 도출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반탄 집회의 참여 강도를 추록한 [모형 2]에서도 [모형 1]과 마찬가지로 보수 정치유튜브 구독($\beta=0.9153$, $t=3.94$)의 정(+)의 영향력이 확인됐다. 또한 탄핵에 대한 분노($\beta=0.1336$, $t=2.39$)와 정치적 결사체 활동($\beta=0.3810$, $t=3.05$)의 정(+)의 영향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감정($\beta=-0.0076$, $t=-2.35$)과 온라인 정치참여 선호($\beta=-0.3660$, $t=2.44$)의 부(-)의 영향력도 도출됐다. 이는 보수 정치유튜브를 구독하고, 평상시 정치적 결사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탄핵에 대한 분노와 함께 더불어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높을수록, 그리고 평상시 오프라인상에서 다양한 정치참여 활동을 실천할수록 반탄 집회에 많이 참여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 중 보수 정치유튜브 구독의 추정계수 절댓값은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모형 1]과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변수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보수 및 진보 정치유튜브 구독이 찬탄 혹은 반탄 집회의 참여 강도에 미친 영향

변수	[모형 1] 찬탄 집회 참여 강도			[모형 2] 반탄 집회 참여 강도		
	주정치	t값	prob.	주정치	t값	prob.
상수	2.9731	3.65	0.0003	1.1198	1.94	0.0528
진보(찬탄)/ 보수(반탄) 정치유튜브 구독	0.3885	1.74	0.0833	0.9153	3.94	0.0001
정치적 정향	이념	-0.1125	-2.47	0.0141	0.0358	0.76
감정	계엄 분노(찬탄) 탄핵 분노(반탄)	0.0221	0.25	0.8055	0.1336	2.39
						0.0173

변수		[모형 1] 찬탄 집회 참여 강도			[모형 2] 반탄 집회 참여 강도		
		주정치	t값	prob.	주정치	t값	prob.
감정	국민의힘(찬탄) 더불어민주당(반탄)	-0.0073	-2.20	0.0283	-0.0076	-2.35	0.0195
평상시 정치적 관여	정치결사체 활동 선호	0.4507	4.84	0.0001	0.3810	3.05	0.0025
	온라인 정치참여 선호	-0.2917	-1.89	0.0592	-0.3660	-2.44	0.0153
	외적 효능감 선호	0.0029	0.02	0.9855	0.0071	0.05	0.9635
사회경제적 특성	성별	0.1221	0.62	0.5361	-0.1172	-0.61	0.5442
	연령	-0.0002	-0.02	0.9816	0.0084	1.38	0.1682
	학력	0.0373	0.18	0.8606	0.2279	1.10	0.2718
	소득	0.0410	0.21	0.8367	d328	-0.0235	-0.12
	직업	0.2860	1.35	0.1785	d326	0.0567	0.28
	호남 지역	0.0371	0.12	0.9080	-0.0839	-0.26	0.7926
	영남 지역	-0.0344	-0.15	0.8824	-0.3389	-1.50	0.1339
모형 적합성	N	400			400		
	F값 (prob.)	3.60 (0.0001)			4.65 (0.0001)		
	R ²	0.1158			0.1446		

3. 분석결과의 종합 및 함의

이상의 분석결과는 양 집회 참여자들의 특성 차이를 확인하는 동시에 정치유튜브가 새로운 정치동원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이 연구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었다. 이념적 선명성을 드러낸 집회에서 정치유튜브 구독자들이 집회에 더 많이 참여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더불어 시위나 집회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의 영향력도 유효했다.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5>로 요약되며, 분석결과에 기초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수 및 진보 정치유튜브 구독은 찬탄 혹은 반탄 집회의 참여를 촉진하는 요인 이었다. 방송사나 신문사, 인터넷 언론이 아닌 개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정치유튜브 구독이 집회의 참여 강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사대상 800명 중 “내가 자주 보는 정치·시사 유튜브에 영향”을 받아 집회에 나왔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36.4%였다. 이러한 결과는 “공중파 및 종편이나 신문의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40.8%)보다는 낮았지만, 제도권 미디어나 언론만큼 정치유튜브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보수 및 진보 정치유튜브로 대변되는 디지털 네트워크가 집회 참여라는 직접 행동을 이끌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즉 정치유튜브가 시위 참여를 촉발하는 정치동원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치팬덤적 관점에서 볼 때, 정치유튜버의 수사나 주장이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하나의 계기될 수 있다는 점을 내포한다.

주목할 점은 이념 진영별로 정치유튜브 구독의 영향력이 달랐다는 점이다. 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 채널의 구독이 반탄 집회 참여에 더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이변량 분석에서도 보수 구독자들의 반탄 집회 참여율은 진보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이는 보수 진영 내 정치유튜브의 동원력이 진보에 비해 더 강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실제로 탄핵 국면에서 보수 정치유튜브 구독자들이 제도권 언론을 믿지 않고, 정치유튜브를 통해서만 뉴스를 본다는 인터뷰들이 많이 보도됐고, 반탄 집회 참여자들이 유튜브로 뉴스를 많이 본다는 기사도 다수 나왔다.⁵⁵⁾ 언론의 보도들이 경험적 분석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정치유튜브 채널이 팬덤화된 공동체로 진화됐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보수 정치유튜버의 이념적 설파가 상대적으로 보수 구독자들의 결속력을 강화해 정치동원력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치유튜브의 동원력이 일반적인 시위 혹은 사회운동 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연구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예기치 못한 특정한 사건이나 이념적 이슈로 촉발된 집회는 분노나 감정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정치유튜버의 이념적 설파가 시위 참여의 동원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오프라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조직되는 환경, 노동, 인권 등의 사회운동은 사회구조적으로 내재된 의제를 제기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감정과 정체성보다는 조직적 동원의 효과가 클 수 있다. 그러므로 정치유튜브 채널의 동원 효과는 지속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사안이다.

둘째, 통제 변수 중 정치적 결사체 활동이 양 집회의 참여 강도에 미친 영향력은 사회적 네트워크의 시위 동원력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실제로 이변량 분석의 결과에서 양 집회 참여자들의 결사체 가입 및 활동 수준은 상당히 낮았다. 그럼에도 정당·노동조합·시민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할수록 찬탄 및 반탄 집회에 더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상대적으로 찬탄 집회에서 더 강했다. 2016~17년 촛불집회를 계기로 디지털 네트워크의 확산 속에서 다중 논의가 활성화된 이후에 사회운동론에서는 조직 없이는 운동도 없다는 대명제가 도전을 받기도 했다.⁵⁶⁾ 그러나 당시의 경험적 연구에서도 정치적 결사체 활동은 촛불집회 참여를 이끄는 요인으로 증명되기도 했다.⁵⁷⁾

55) 박지영·김도윤, 앞의 기사; 박서연, 앞의 기사.

56) 장우영 외, 앞의 책.

이번 찬탄 및 반탄 집회에서도 여전히 전통적인 조직 혹은 사회적 네트워크는 정치유튜브로 대변되는 디지털 네트워크와 함께 집회 참여를 이끄는 유효한 요인으로 확인됐다.

셋째, 정치적 결사체 이외에 탄핵 국면에서의 분노, 이념, 그리고 국민의힘 혹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감정도 집회 참여를 촉진하는 요인이었다. 이러한 경향 역시 양 집회별로 차이가 확인됐다. 찬탄 집회와 달리 반탄 집회에서는 이념의 영향력이 도출되지 않았다. 또한 탄핵에 대한 분노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반탄 집회의 참여 강도에 미치는 영향력도 계엄에 대한 분노와 국민의힘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찬탄 집회의 참여 강도에 미친 영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즉 양 집회의 참여를 촉진하는 이념 혹은 감정적 동기가 진영별로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찬탄 집회의 참여가 반대 진영의 정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함께 이념적 선명성을 보여줬다면, 반탄의 경우는 이념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의 표출이 집회 참여를 촉진하는 주요한 동기였다는 점을 함의한다. 보수 진영의 경우는 감정의 동원이 반탄 집회의 참여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것이다.

넷째, 통제변수 중 오프라인 정치참여 활동의 영향력도 나타났으나, 사회경제적 변수는 집회 참여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도출되지 않았다. 나아가 다른 통제변수의 영향력과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정치참여가 양 집회의 참여 강도에 미친 영향력은 차이가 있었다. 즉 찬탄에 비해 반탄 집회 참여에 미치는 오프라인 정치참여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는 것이다. 이는 평상시 시위나 집회 참여를 포함해 다양한 사회운동 및 민원제기 등의 활동을 통해 정치문제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관여적 시민들이 양 집회에 더 많이 참여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반탄 집회 참여자들에게 더 강하게 나타났다.

한편 사회경제적 변수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해석상의 주의가 필요하다.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었다는 점은 사회경제적 배경과 무관하게 다양한 사람들이 양 집회에 참여했다는 점을 내포한다. 또한 찬탄 및 반탄 집회처럼 특정한 사건에 의해 발생하는 반응적 집회가 자원 동원모델에서 말하는 계급이나 계층보다 감정과 정체성의 산물일 수 있다는 점을 함의한다. 감정의 영향력은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초부터 방법론상의 한계, 즉 양 집단 참여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분석대상을 성별, 연령, 권역별로 동일하게 할당 표집한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로도 보아야 한다. 물론 학력, 소득, 직업의 변수는 연구모형에 포함했다. 그럼에도 만약 양 집회의 참여자 이외에 일반 대중을 분석대상에 포함했다면, 사회경제적 변수의 영향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변수의 영

57) 도묘연b, 앞의 논문.

향력은 그 해석에 대한 경계와 함께 일반 대중을 포함한 후속 연구를 통해 다시 검증해야 할 것이다.

〈표 5〉 분석결과의 종합

구 분		찬탄 집회 참여 강도	영향력 비교	반탄 집회 참여 강도
정치유튜브 구독	진보/보수 채널 구독	○	<	○
정치적 정향	주관적 이념	○	>	×
감정	계엄/탄핵에 대한 분노	×	<	○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부정 감정	○	<	○
평상시 정치적 관여	정치적 결사체 활동 참여 추구	○	>	○
	오프라인 정치참여 선호	○	<	○
	정치효능감(외적 혹은 내적) 추구	×	-	×
사회경제적 변수	학력, 소득, 직업 (* 성별, 연령, 지역 표집에서 통제)	×	-	×

V. 결론

지금까지 이 연구는 정치유튜브 구독이 12·3 계엄 이후에 촉발된 찬탄 및 반탄 집회 참여의 강도에 미친 영향을 규명했다. 이 과정에서 이념적 균열구조를 드러낸 집회 참여 자들의 특성을 비교 분석해 양 집회의 성격도 제시했다. 이러한 작업은 정치유튜브가 기존의 정당이나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 같은 오프라인 네트워크와 함께 새로운 정치동원의 매개체로 부상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즉 정치유튜브 채널에 의한 정치동원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나아가 실제 집회 참여자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해 이념적 선명성을 보여준 집회 참여의 미시적 동기를 추정했다는 가치도 가진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유튜브 구독은 찬탄 및 반탄 집회 참여를 촉진하는 요인이었다. 그리고 진보에 비해 보수 정치유튜브 구독의 더 영향력이 더 강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보수 정치유튜버의 정치동원력이 진보보다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통제변수의 영향력은 사회경제적 변수에서 나타나지 않았고, 양 집회별로 차이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혹은 국민의힘에 대한 부정적 감정, 평상시 정치적 결사체 활동, 오프라인 정치참여의 영향력은 양 집회에서 모두 도출됐다. 반면 이념의 영향력은 찬

탄 집회에서, 그리고 분노(탄핵)의 효과는 반탄 집회에서만 확인됐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전통적인 정당·노동조합·시민단체와 같은 오프라인 네트워크와 함께 디지털 네트워크를 대변하는 정치유튜브의 정치동원력이 유효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12·3 계엄 이후에 진행된 찬탄 및 반탄 집회가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 속에서 이념과 진영별로 나뉜 감정과 정체성의 동원에 기반을 두었다는 점도 확인해 주었다. 즉 정치적 분노와 정체성의 충돌이 집회 참여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상대적으로 찬탄 집회보다는 반탄 집회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특히 정치유튜브가 시위 동원의 매개체가 되었다는 점은 한국의 정치과정 혹은 민주주의에 큰 객정거리를 던져주었다. 정치유튜버가 정치인 혹은 이념의 전도사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정치동원력까지 확보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연구의 분석결과가 감정을 증폭시키는 유발성 집회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운동에서도 유효한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럼에도 분석결과는 정치유튜브 채널이 팬덤화된 공동체로 작동하는 현실은 정당과 시민단체와 같은 전통적인 동원의 매개체나 제도권 언론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무엇보다 제도권 정치인과 결탁해 우리 대 그들이라는 혐오와 이분법적 수사를 구사하는 정치유튜버의 수사가 합리적인 이성이 아니라 극화된 감정의 동원을 이끈다는 점이 문제이다. 즉 숙의하는 대중이 아니라 상대 진영을 조롱 혹은 편하하는 대중을 양산하면서 오프라인 정치참여를 이끈다는 것이다.

물론 대중문화 팬덤처럼, 팬덤화된 정치유튜브 공동체에서도 팬들이 댓글, #해시태그 운동, 멈 제작 등과 같은 미디어 텍스트를 활용해 정치 문제에 대해 비판적 의식을 드러내는 모습은 참여 민주주의의 성격을 가진다. 또한 팬덤 연구에서 강조하는 팬덤의 대상과 팬, 그리고 팬과 팬의 정서적 유대감은 오프라인 결사체에서 형성된 연대감이 정치참여를 추동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특히 긴 영상을 무제한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유튜브 플랫폼의 디자인적 특성은 하나의 영상을 통해 정치유튜버와 이용자들 간의 준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한다. 즉 유대감 기반의 디지털 네트워크 형성에 탁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불거졌던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 사건 당시에 BTS 가 트위터에 #BlackLivesMatter를 내놓자 팬들이 인종 차별에 반대해 안티-BLM 게시물의 화산을 막았던 사례처럼, 정치유튜버의 합리적인 메시지는 긍정적인 팬 동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순기능이 팬덤화된 정치유튜브 공동체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이념적 선명성을 기반으로 경제적 및 정치적 이익을 상호 주고 받는 정치인과 정당, 그리고 정치유튜버가 자리하고 있다. 유튜브 혹은 정치유튜브의 제작과

시청은 이미 시대적인 패러다임이 됐고, 온·오프라인 정치참여를 추동하는 정치유튜브의 동원력도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정치팬덤 연구의 확산이 함의하듯이, 디지털 네트워크 속의 대중들은 정치적인 것, 즉 정당, 정치인, 이념에 대한 지지를 대중문화처럼 소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팬덤화된 정치유튜브가 강력한 동원력과 정서적 유대감이라는 특징은 유지하면서도 숙의의 공간으로 변모될 수 있는 열쇠를 정당과 정치인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함의한다. 팬으로 진화한 대중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선동하는 대상이 아니라 공공선의 구현을 위해 함께 토론하는 정치 동반자로 인식하려는 정당과 정치인의 합리적인 책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한편, 이 연구는 분석대상에 일반 대중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사실 12·3 계엄 이후의 집회가 전국적으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집회 참여자를 정확히 추정할 수 없어 일반 유권자까지 포함하는 자료 수집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 대안으로 성별, 연령별, 권역별로 표집된 참여자만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했지만, 분석결과의 일반화에는 일정한 제약이 수반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일반 대중과의 비교 분석을 위한 연구모형의 수립과 자료수집의 대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치유튜브 구독이 집회의 참여 강도에 미친 영향을 규명한 만큼, 구독이 감정이나 정치효능감 등을 경유해 집회 참여에 미친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연구로도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준만,『정치 무당 김어준: 그 빛과 그림자』, 서울: 인물과 사상사.
- 김아영·최승영, “유튜브 구독자 증가, ‘찬탄’ 1300만 ‘반탄’ 1100만 박빙”, 『한국기자협회』, 2025년 7월 8일.
- 도묘연·김찬우a, “보수 및 진보 정치유튜버 팬덤의 특성에 대한 비교 분석”, 『현대정치연구』, 제18권 제2호,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25.
- 도묘연·김찬우b, “보수 및 진보 정치유튜버 팬덤은 어떠한 담론을 형성했는가?: 22대 총선의 사례”, 『국제정치연구』, 제28권 제3호,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25.
- 도묘연a, “SNS 이용자 특성과 선거참여 행태 분석: 18대 대선의 사례”, 『국제정치연구』, 제18권 제1호,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5.
- 도묘연b, “2016년-2017년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참여의 결정요인”, 『의정연구』, 제23권 제2호,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7.
- 도묘연c, “결사체 활동, 시민성 그리고 촛불집회 참여의 경로구조”, 『현대정치연구』, 제10권 제2호, 서강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7.

- 박상현 외, “유튜브 정치·시사 채널 이용이 정치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컨텐츠학회논문지』, 제20권 제9호, 한국콘텐츠학회, 2020.
- 박서연, “尹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 64.5% ‘유튜브’로 뉴스 본다”, 『미디어오늘』, 2025년 4월 4일.
- 박지영·김도윤, “체포 난리통 한남동에 쏟아진 슈퍼챗…이념과 결합한 유튜브”, 『헤럴드경제』, 2025년 1월 16일.
- 방덕현 외, “尹구속에 지지자들 서부지법 난입…45명 현행범 체포”, 『연합뉴스』, 2025년 1월 19일.
- 서지원, “좌표 찍히자 “식당 불 지른다” 문자 떴다…찬탄·반탄 극한 내전”, 『중앙일보』, 2025년 1월 14일.
- 송경재, “정치 유튜브 이용자의 정치참여 의식에 관한 연구: ICT의 정치참여 효과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제20권 제1호,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22.
- 엄기영 외, “유튜브 뉴스의 사회적 시청 과정에서 정치표현이 정치적 태도극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제69권 제1호, 한국언론학회, 2025.
- 오정우, “윤 소식, 유튜브로만 봐…반탄집회 확증편향 우려”, 『뉴시스』, 2025년 1월 16일.
- 위지혜·박자경, “유튜버·정치인 공생…그들만의 ‘썰’로 팬덤·혐오정치 증폭”, 『매일경제』, 2024년 7월 14일.
- 유용민, “유튜브 시사정치채널 이용자들의 뉴스 관점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컨텐츠학회논문지』, 제21권 제4호, 한국콘텐츠학회, 2021.
- 이갑윤, “촛불집회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정치적 정향과 태도”, 『현대정치연구』, 제9권 제1호, 서강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0.
- 이소영, “웹 2.0시대 온라인 미디어의 정치적 역할”, 『동서연구』, 제24권 제2호,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2.
- 이현우, “촛불집회 참여강도 분석: 정체성, 분노, 효율성”, 한국선거학회·서강대학교 현대정치 연구소 공동 학술회의, 서울, 2017.
- 임영호 외, “온라인 뉴스 이용자의 뉴스관과 뉴스이용”, 『한국언론학보』, 제52권 제4호, 한국언론학회, 2008.
- 장승진·한정훈, “유튜브는 사용자들을 정치적으로 양극화시키는가 주요 정치 및 시사 관련 유튜브 채널 구독자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현대정치연구』, 제14권 제2호,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21.
- 장우영 외, 『촛불집회와 다중운동』, 펴주: 한국학술정보, 2019.
- 장우영, “촛불집회의 지속과 변화: 역사적 제도주의의 시각에서”, 『한국정치연구』, 제27권 제3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8.
- 장훈, “촛불의 정치와 민주주의 이론: 사실과 가치의 긴장과 균형”, 『의정연구』, 제22권 제2호, 2017.
- 정윤성, ‘여의도 권력’ 위에 ‘유튜브 권리’…한국 정치 뒤흔드는 ‘정치 상왕’ 김어준-고성국“,

- 『시사저널』, 2025년 9월 26일.
- 정철운, “‘유튜브로 뉴스 본다’ 세계 1위 대한민국,” 『미디어오늘』, 2023년 10월 04일.
- 조기숙·박혜윤, “광장의 정치와 문화적 충돌: 2008 촛불집회에 대한 경험적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4호, 2008.
- 조진만, “정보화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효과: 경험적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45집 제5호, 한국정치학회, 2011.
- 최승영·김아영, “지난 6개월 계엄·탄핵에... 유튜브 구독 지형이 흔들렸다”, 『한국기자협회』, 2025년 7월 2일.
- 최재훈, “집합행동의 개인화와 사회운동 레퍼토리의 변화”, 『경제와 사회』, 제113호(봄), 2017.
- 함민정·이상우, “유튜브 정치동영상의 선택적 노출과 정치적 태도극화: 정치성향별 내집단 의식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1권 제5호, 한국콘텐츠학회, 2021.
- 홍혜승·류은영, “신뢰가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인사행정학보』, 제14권 제2호, 한국인사행정학회, 2015.
- Anderson, Benedict,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2006.
- Baran, Şebnem, “Populist Fandoms and Anti-fandoms: Politics, Polarization, and Celebritization in Turkey”, JCMS, Vol. 63, No. 2, 2024.
- Barnes, Renee and Renée Middlemost, “Hey! Mr Prime Minister!: The Simpsons Against the Liberals, Anti-fandom and the Politics of Against”,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66, No. 8, 2022.
- Bennet, Lance and Alexandra Segerberg, “Digital Media and the Personalization of Collective Action: Social Technology and the Organization of Protests against the Global Economic Crisis”,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Vol. 14, No. 6, 2011.
- Dalton, Russell, “Citizenship Norms and the Expansion of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Studies, Vol. 56, No. 3. 2008.
- Dean, Jonathan, “Politicising Fandom”, British Journal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9, No. 2, 2017.
- Finlayson, Alan, “YouTube and Political Ideologies: Technology, Populism and Rhetorical Form”, Political Studies, Vol. 70, No. 1, 2022.
- Gamson, William A., “The Social Psychology of Collective Action”, Morris, Aldon D. and Carol McClurg Mueller eds., *Frontiers in Social Movement Theory*,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2.
- Jenkins, Henry, “Cultural Acupuncture: Fan Activism and the Harry Potter Alliance”, Lincoln Geraghty, ed., *Popular Media Cultures Fans, Audiences and Paratexts*,

- Lodon: Palgrave MacMillan, 2012.
- Jurg, Danie, Marc Tuters and Ike Picone, “Alex, DO NOT BACKPEDAL ON SANDY HOOK!: Reactionary Fandom, Cancel Culture, and the Possibility of ‘Audience Capture’ on YouTube”, *Television & New Media*, Vol. 26, No. 1, 2025.
- Kim, Min-Young, “Korea’s Angry Right-Wing Youth Become YouTubers to Rail against Impeachment, Liberals and the Chinese”, *『Korea JoongAng Daily』*, 2025년 2월 19일.
- Negri, Antonio and Michael Hardt 지음, 조정환 외 번역, 『다중』, 서울: 세종서적, 2008.
- Oh, Kyoung Mi, “Political Polarization Manifests on YouTube – Hardcore Supporters on Both Sides More Likely to Be YouTube Subscribers, YouTube Users More Willing to Reject Constitutional Court Ruling”, *『Open Net Korea』*, 2025년 4월 24일.
- Park, Ju-min and Tom Bateman, “Inside South Korea’s Right-Wing YouTube World Openly Embraced by Yoon”, *『Reuters』*, 2024년 12월 16일.
- Pollock, Phillip H., “The Participatory Consequences of Internal and External Political Efficacy: A Research Note”, *The Western Political Quarterly*, Vol. 36. No. 3, 1983.
- Sandvoss, Cornel, Fans: The Mirror of Consumption, Cambridge: Polity Press, 2005.
- Schussman, Alan and Sarah A. Soule, “Process and Protest: Accounting for Individual Protest Participation”, *Social Forces*, Vol. 84, No. 2, 2005.
- Topinka, Robert, “Conspiracy Theories Should Be Called Spoiler Alerts: Conspiracy, Coronavirus and Affective Community on Russell Brand’s YouTube Comment Section”, *New Mdia & Scietiy*, Vol. 27, No. 7, 2024.
- Verba, Sidney, Kay Scholzman and Henry E. Brady, Voice and Equality: Civic Voluntarism in American Politic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 Wurst, Christina, “Bread and Plots: Conspiracy Theories and the Rhetorical Style of Political Influencer Communities on YouTube”, *Media and Communication*, Vol. 10, No. 4, 2022.
- Yi, Jinkyung, “The Flow of the Masses and the Candlelight Demonstrations in South Korea”, *Korea Journal*, Vol. 60, No. 3, 2020.

정치유튜브 구독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및 반대 집회의 참여를 촉진했는가?: 집회 참여자를 중심으로 (도묘연)

〈부록〉 친탄 및 반탄 참여자들이 구독한 보수 및 진보 정치유튜브 채널명

	보수 정치유튜버 채널명	빈도	%	진보 정치유튜버 채널명	빈도	%
1	그라운드씨	32	14.2	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	99	40.1
2	꽃보다전한길	19	8.4	매불쇼	73	29.6
3	고성국TV	17	7.5	사장님천동	16	6.5
4	성창경TV	15	6.6	열린공감TV	6	2.4
5	배승희변호사	11	4.9	스팩스	6	2.4
6	팬앤마이크TV	11	4.9	새날	4	1.6
7	서정옥TV	9	4.0	이동형TV	5	2.0
8	가로세로연구소	8	3.5	강성범TV	3	1.2
9	신의한수	8	3.5	백운기의정어리TV	3	1.2
10	성제준TV	8	3.5	정치유감	3	1.2
11	이봉규TV	6	2.7	정치한잔	3	1.2
12	송국건의흔술	5	2.2	박시영TV	3	1.2
13	호밀밭의우원재	5	2.2	송작가TV	3	1.2
14	진성호방송	5	2.2	정치보감	3	1.2
15	미디어워치TV	5	2.2	언론알아야바꾼다	2	0.8
16	인싸it	4	1.8	고양이뉴스	1	0.4
17	신인균국방TV	4	1.8	김용민TV	1	0.4
18	꽉TV	3	1.3	나두잼	1	0.4
19	샤인튜브	3	1.3	대안뉴스	1	0.4
20	조갑제TV	3	1.3	미디어몽구	1	0.4
21	지식의칼	3	1.3	시사타파TV	1	0.4
22	최병목의FACT	3	1.3	정치소담	1	0.4
23	한국의목소리	2	0.9	이선옥TV	1	0.4
24	감동란TV	2	0.9	이송원TV	1	0.4
25	강신엽TV	2	0.9	정치박사	1	0.4
26	내시십분	2	0.9	정치반장	1	0.4
27	전광훈TV	2	0.9	최경영TV	1	0.4
28	전원책TV망명방송	2	0.9	정치일학	1	0.4
29	젊은시각	2	0.9	정치타파	1	0.4
30	책읽는사자	2	0.9	정치파랑새	1	0.4
31	천조국파랭이	2	0.9			

	보수 정치유튜버 채널명	빈도	%	
32	전옥현안보정론TV	2	0.9	
33	고영신TV	1	0.4	
34	누리PD-TV	1	0.4	
35	도람뿐	1	0.4	
36	박주현변호사TV	1	0.4	
37	벼미TV	1	0.4	
38	빽가	1	0.4	
39	새마을방송	1	0.4	
40	서민방송	1	0.4	
41	손상대TV	1	0.4	
42	송원재TV	1	0.4	
43	신지호의쿨톡	1	0.4	
44	안정권	1	0.4	
45	양영태박사TV	1	0.4	
46	이병준TV	1	0.4	
47	이영풍TV	1	0.4	
48	자유마을TV	1	0.4	
50	정치왓수다	1	0.4	
51	정치이야기	1	0.4	
52	차명진TV	1	0.4	

【Abstract】

Did Subscribing to Political YouTube Channels Promote Participation in Pro- and Anti-Impeachment Rallies Against Former President Yoon Suk-yeol?: Focusing on Rally Participants

Do, Myouyen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subscribing to political YouTube channels on the intensity of participation in pro- and anti-impeachment Rallies that emerged following the December 3 martial law declaration.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in both types of rallies and to assess the influence of political YouTube channels, which have become a new medium for political mobilization. The analysis was limited to rally participants and individual political YouTube channels.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subscriptions to political YouTube channels increased participation in both pro- and anti-impeachment rallies. Moreover, the influence of subscriptions to conservative channels was stronger than that of progressive channels, indicating that conservative political YouTubers had greater mobilization power than their progressive counterparts. Second, the effects of the control variables did not appear in socioeconomic factors and differed between the two rallies. Negative sentiments toward either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or the People Power Party, as well as regular political association activities and offline political participation, were significant in both rallies. Conversely, ideological orientation was significant only in the pro-impeachment Rallies rally, while the effect of anger related to the impeachment issue was evident only in the anti-impeachment Rallies rally. These results empirically demonstrate the mobilizing power of political YouTube channels in facilitating protest participation, alongside political associations.

Key Words : political YouTube subscription, pro- and anti-impeachment rallies, protest participation, political mobilization, fandom.

• 논문투고일 : 2025년 10월 31일 / 논문심사완료일 : 2025년 11월 19일 / 게재확정일 : 2025년 11월 19일

